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기술개발 및 연구현황

학교폭력의 최초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시기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46.2%로 가장 높았고, 가해경험 역시 4~6학년에서 55.0%로 나타나 이 시기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급별 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사 빈도는 중학교가 69%, 초등학교 3%, 고등학교 28%로 중학교 발생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10),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 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쳐 전체 학생 수의 약 25%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학생에 의한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장준오, 2012).

학교 폭력 가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은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충동성, 반사회성 행동(공격성), 분노, 절망감, 비행, 음주, 성, 흡연, 가출, 학교생활, 교사와의 관계, 또래, 폭력노출, 빈곤, 가족문제, 부모의 양육태도, 멀티미디어 영향으로 분류되었고, 심리사회적 요인의 핵심원인은 가족의 기능적, 구조적 결손과 성장기에 경험한 폭력장면 노출이다(권현용와 김현미, 2009).

현재, 학교 폭력 등의 시스템이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보다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김선훈, 2012).

친사회적 행동성은 학원폭력 의식화를 촉진하는데, 직·간접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적 기제이다(신성자, 2011). 공감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며 공격성을 감소시킨다(조한익·이미화, 2010).

학교폭력 유발 요인 감소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이웃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과 후 학습이나 학교폭력에 합동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며, 미국은 관계적 차원의 전략에서는 긍정적 교우 관계와 팀워크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 관계에 개입하여 치료 수행(정재준, 2012)

학교 폭력 가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냈고, 공격성은 가해행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낸다(Ireland & Archer, 2004). 6세에서 12세 때의 공격성은 17세 때의 가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okko, Tremblay와 Lacourse, 2006).

폭력 문제의 진단·평가·분석, 가해학생, 피해학생과 학부모 치유를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점 도출로 이루어진다.